

2016 UOS

학습공동체 지원 **Show Your Talent!**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의 장(場)' 마련

2016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UOS-학습공동체 프로그램(Show Your Talent!)을 실시,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uos.ac.kr>)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 연구주제

- **자율주제** 예) 전공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연구, 활동 프로젝트
이웃과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공헌형 프로젝트
타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관심사)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
그 밖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엉뚱발랄, 기상천외, 감동가득한 프로젝트 등

📄 지원대상

- 총 30팀(예정)
- 서울시립대 학부생(휴학생, 대학원생 제외) / 그룹 당 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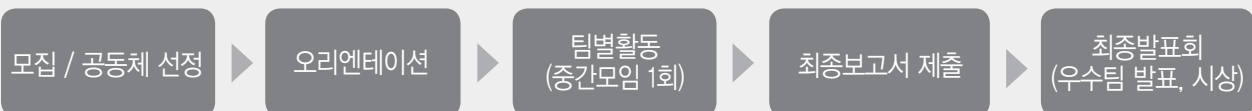
📅 활동기간

- 4개월

🔍 지원사항

-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활동비 50만원 지원(예정)
※ 지원금액 내에서 우리 대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 가능
- 우수 활동팀 상장(총장상) 및 시상금 수여

📱 운영절차



※ 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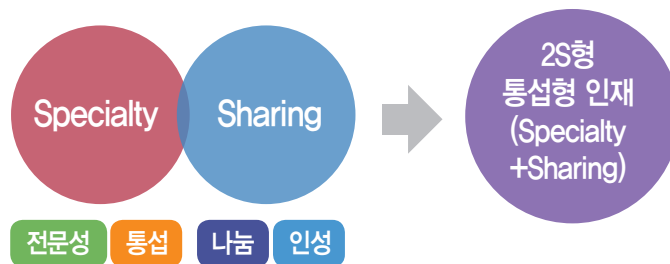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공동체 담당자(02-6490-6014/5833)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ctl.uos.ac.kr>



2016년도 UOS-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지원배경 및 목적

지원배경 및 목적

-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주제에 따라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동체 가운데 자아를 탐구,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의 장 마련
 - 전공지식의 실제적 적용을 통한 실천적 지식 습득
 -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삶의 터전에서의 문제를 발견, 해결해나가는 실천적 인재 육성
 - 타 전공 학생들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융합·통섭형 인재 양성에 기여
 - 간학문간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의 장(場) 마련



핵심 역량	Specialty 관련 역량	전문성 역량	내실 있는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심화된 지식을 축적·생산·활용할 수 있는 역량
		통섭 역량	한 분야의 전문성 외에 다른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여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학제적 소통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Sharing 관련 역량	인성 역량	타인과 공감하고, 공동체적 보편가치를 인식하며,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성을 함양하는 내적 역량
		나눔 역량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나 기타 능력을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동시에 나누면서 배우는 실천적 역량
수행 역량	자아성찰 역량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	
	사회관계 역량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분석추론 역량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여, 자료에 표면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이를 통해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사고 역량	주어진 관점 이외의 다른 관점에서도 주장 혹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이의 상대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	
	창의혁신 역량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제시된 다양한 대안을 비교·선택해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협업창안 역량	의견차나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집단지성을 끌어냄으로써, 개인의 한계를 집단으로 극복해 내는 역량	
	글로벌 역량	포용적인 시각에서 타 문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여, 자기문화와 타 문화 간의 진정성 있는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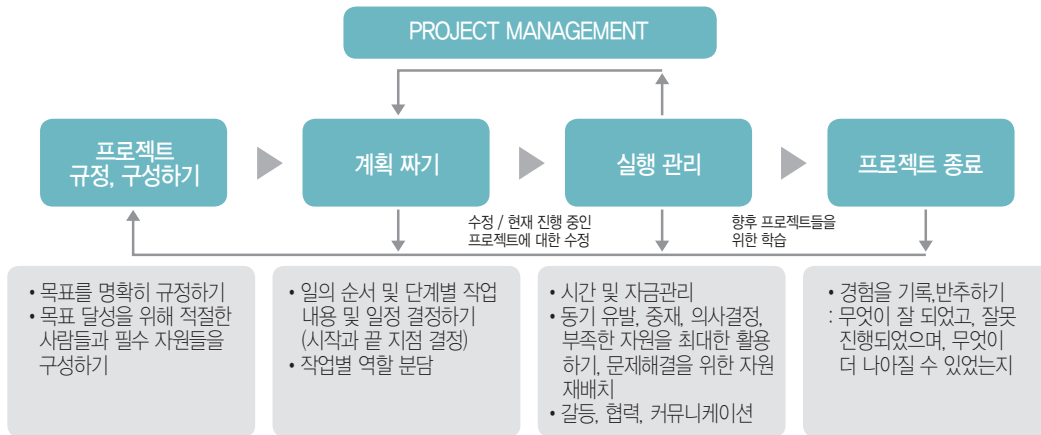
2016년도 UOS-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준비를 위한 TIPS

어떤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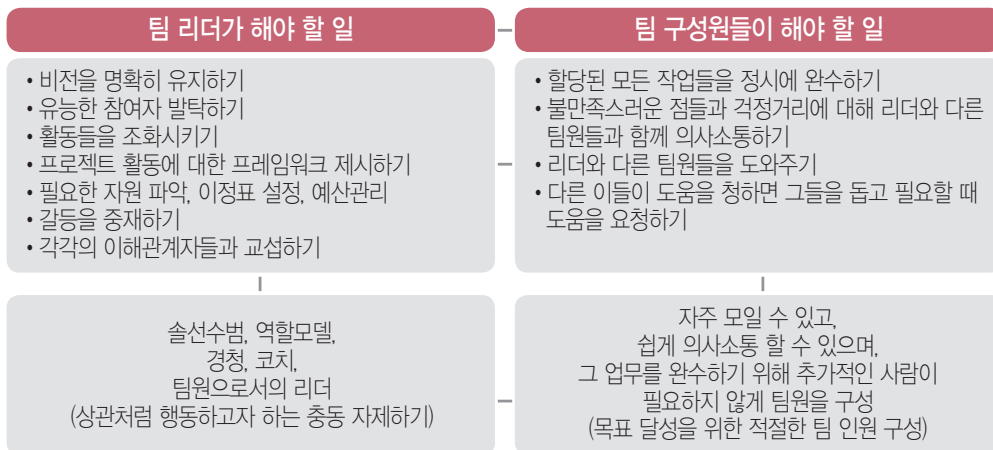
- ① 자발적으로 비슷한 관심사나 공동의 목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 ② 주제에 대한 서로의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 ③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동료, 선후배와 함께 합니다.

프로젝트 팀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프로젝트 운영과정



팀 리더 / 구성원별 역할



유능한 프로젝트 팀의 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춘
- 뚜렷한 공동의 목표
-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
- 모든 이들이 기여하고 그들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환경
- 개인의 목표와 프로젝트 목표 사이의 조화

• 하버드경영대학원(2005), Harvard Business Essential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발췌 (25~78p), 웅진윙스

지난 UOS-학습공동체 프로그램(ELP) 우수 사례

※ 2016년도 UOS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지난 UOS 학습공동체 프로그램과 다른 형태로 운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왜 학습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전공지식의 실제적 적용 및 활용을 위해

공모전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경제학부 논문이다 보니 실증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 파트가 있다. 회귀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경제학과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이렇게나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시험에 나오는 지식만 공부하고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지식들은 외면한 게 아닌가라는 점이 퍼뜩 떠올랐다.
(경제학부, 남**, 2013년도 참여학생)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 들어가면 언수외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실컷 할 수 있겠지.. 정말 다양한 경험 이것저것 해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 · ·) 전공 공부를 무려 4년 동안이나 하면서, 막상 우리 손으로 직접 논문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계속 다짐했던 것은 '수업에서 한번 듣고 넘기는 식의 공부가 아니라 진짜 나 스스로 깨달아서 체득하는 공부를 하자' 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읽어야 할 논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깊어졌다.
(경제학부, 김**, 2013년도 참여학생)

●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나요?

전공 공부에 대한 흥미

그 동안 큰 범주인 '컴퓨터'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데 뜯구름 잡는 것 같이 막연한 느낌도 들고, 학기가 더해질수록 내용이 어려워져 공부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각자 준비해온 내용을 서로에게 발표하고 하면서 스터디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닉스 과목에도 흥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은 날도 있기 마련인데 팀원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하기 싫은 날에도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스터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하기 싫은 날보다 하고 싶은 날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과학부 송**, 2012년도 참여학생)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

나 혼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끝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 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응원해주었던 팀원들이 있고, 교수님의 따뜻한 지도가 있어서 반드시 완성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는 법이라든가, 자료를 정리하는 법, 글을 논리 정연하게 쓰는 법, 무엇보다도 논문을 작성하는 법 등 실무적으로도 글쓰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이 경험을 통해 목적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힘든 경험을 했는데 무엇을 못할 것인가 하는 도전정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팀원들간의 협동심과 배려심 등 사회성을 기르며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경제학부, 오**, 2013년도 참여학생)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했기도 했고, 성격상 발표하거나 토론하는게 어려워져 조별과제도 최대한 피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수업을 듣던 선배로부터 함께 논문 공모전을 준비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맡은 부분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논문 쓴 것을 발표하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원들과 같이 공부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해보니 혼자서 공부했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내용까지 알게 되고 생각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행정학과, 장**, 2013년도 참여학생)

• '2012, 2013 나를 성장시킨 시립대 프로그램(학사교육원 글쓰기 센터)'에서 발췌

지난 UOS-학습공동체 프로그램(ELP) 우수 사례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 전공과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현대시장 활성화 활동을 진행하면서, 시장 주변에서 만나게 된 상인, 시장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빈 여러 고객들, 시장을 지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늘릴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생으로써는 하기 힘든 수익 모델을 직접 만들게 되면서 전공인 경영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여 모든 것을 조사하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는 활동은 제게 많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경영학부 김**, 2012년도 참여학생)

학습한 내용의 실제적 적용

신문 및 경제잡지를 이용한 학습은 현 시대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경제학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여 볼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의 경제학적 분석은 일상생활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취업을 위한 면접 대비나 시험 대비로서 아주 큰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이번 학기 거시 과목 수강과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한 심화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론을 현실 경제에 적용, 분석하는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경제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경제학부 조**, 2012년도 참여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고등학교 때까지는 누군가 옆에서 나의 학습에 대해 계획해 주고 시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숙한 대학생이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할 나이가 되었다. 내가 가장 만족했던 점은 스스로 학습에 대해 자각을 하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매주 함께 만나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결과를 정리하다 보면 항상 학습한 내용이나 학습할 내용에 대해 자각하고 있게 된다. 더불어 주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한 주 동안의 학습을 돌아보게 되고 다음 번의 학습에 대해 계획하게 된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축공학과 장**, 2012년도 참여학생)

꾸준히 공부하는 학습 습관

처음에는 과제도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씩 할애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바쁜 학교 생활에 오히려 욕심을 부려서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통해 학습하는 이 과목(유닉스)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게 되었고, 매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몰아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조금씩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컴퓨터과학부 송**, 2012년도 참여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고 물론 나도 그러했다시피 학습을 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오거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공부를 몰아서 한꺼번에 하게 된다. 이 경우 학습의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후에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매주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하게 되어 학습 효과가 확실하게 높아졌다. (건축공학과 장**, 2012년도 참여학생)

리더십, 프로젝트 관리 능력

모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밀리면 서로에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갈등을 중재하고 일정을 제때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팀장의 입장에서 고민이 생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더십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고,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고 구성원 각자가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팀이 되어 기업의 조직처럼 목표를 위해 예산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고 상사와 같은 담당 연구원과 연락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팀 내의 일정, 혹은 업무적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예산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서류 제출이 왜 중요한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경제학부 남**, 2013년도 참여학생)

교우 관계 돈독

후배들과의 교우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배, 후배들에 비해서 동기들 하고만 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같은 팀원인 **학번 후배들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들과도 다시 한 번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컴퓨터과학부 송**, 2012학년도 참여학생)

• *2012, 2013 나를 성장시킨 시립대 프로그램(학사교육원 글쓰기 센터)에서 발췌

지난 UOS-학습공동체 프로그램(ELP) 우수 사례



보고서 등 문서도구 활용 능력

처음에 1주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점차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정리나, 학습에 필요한 그림과의 배치,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이 좀 더 깔끔하게 잘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 때의 레포트 뿐만 아니라 훗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큰 공부**가 된 것 같아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과학부 송**, 2012년도 참여학생)

그룹 내부 구성원들마다 각자 잘하는 능력과 못하는 능력이 있는데 PPT, 발표, 자료 수집, 스크랩 등을 고루 고루 나눠서 작업하다 보니 **잘하는 능력은 더 같고 닦아지고 못하는 능력은 계속 개발되어서 결국엔 다 같이 잘하게 되었다.** 이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했다고 여긴 중요한 사항이었다. (경제학부 조**, 2012년도 참여학생)

교수님과 학문적 교류&친밀감

지도교수님을 구하고 논문을 구성하는 과정부터 정말 재미있었다. 교수님께 드릴 녹차와 각종 군것질을 산 다음 교수님 방문을 두드리면 교수님은 언제나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논문의 전반적인 방향, 계량경제 프로그램에서 수식을 만들어내는 방법, 변수의 단위를 바꾸는 방법 등 **교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4개월여의 시간 동안 귀찮기도 하셨을 텐데, 논문이 처음이라 이리저리 헤매기만 하는 우리들을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다행이었다. (경제학부 김**, 2013년도 참여학생)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됨

나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나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꼈고, 더 나아가 **앞으로 내가 키워나가야 할 역량**들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에 나가서도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학과 장**, 2013년도 참여학생)

● 어떤 자세, 마음가짐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을 해야 할까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기

협동학습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배려**의 중요성이다. 협동학습 이전에도 전공, 교양 수업에서 조별 학습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또한 많았다. 특히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준비해온 자료의 양과 질이 크게 다르고, 과제에 투자하는 시간 또한 다르다는 점 등이 조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다. 조원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도 일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국제관계학과 윤**, 2013년도 참여학생)

연대의식을 갖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여러 수업에서 진행되는 다른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참여의 의무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자신이 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따로 해오겠다 하는 사람, 혹은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골치를 썩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험학습 프로그램은 약간의 의무감을 갖게 해준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원**이 되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 의식도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건축공학과 정**, 2012년도 참여학생)

경청하기

무엇보다 팀에서 서기를 맡아 주간학습보고서를 썼던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간학습보고서를 쓰려면 학습한 내용과 앞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야 했고, 따라서 회의에 누구보다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발표한 것과 질의 응답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조원들의 말을 **경청**하다 보니, **내용을 듣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도시행정학과 장**, 2013년도 참여학생)

• *2012, 2013 나를 성장시킨 시립대 프로그램(학사교육원 글쓰기 센터)에서 발췌

“All is well”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누구나 살다 보면 한번쯤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아직 스물다섯 살인 나에게 며칠 전 ‘최고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 ‘최고의 순간’에는 ‘ELP 프로그램’이 함께 했다. 많은 학생들이 ‘ELP’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서 ‘ELP’ 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도 해볼 겸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몇 글자를 적어보려고 한다.

‘ELP’라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특히 이번 학기 나는 B그룹으로 대외공모전 및 심화전공 공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나는 이번 ‘EL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였다. **대외공모전 참가**로 인한 스펙 쌓기, 관련 전공 공부의 심화, ‘ELP 프로그램’으로 인한 연구비 획득이 목표였다. 그리고 내 눈 앞에 들어온 것은 바로 동부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3회 대학(원)생 금융제안 공모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평소 주식투자를 조금 해보면서 주식과 금융에 흥미가 있었던 터라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 ‘ELP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도 지원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모전까지 입상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에 공모전 팀을 꾸리게 되었고 **나와 비슷한 생각(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같은 과의 형들 두 명을 섭외할 수 있었다.

사실 대학원생도 참가할 만큼 이번 공모전은 꽤나 수준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더군다나 공모전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것은 **논문**이었으며, 논문 제출까지는 약 두 달여 정도가 있었지만 논문은 전혀 써본 적이 없었다. 소위 ‘맨 땅에 헤딩’하기였다. 많은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그 공모전에서 어떻게 입상하겠냐며 차라리 내가 부족한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의 미래에 더 도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난 정말 한번 꼭 참가해보고 싶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나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같은 팀을 하던 형들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절실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달여 시간 동안 같이 열정을 불태워 보기로 하였다.

논문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골랐다. 바로 통계학과라는 **우리의 전공과 주식이라는 관심을 연결할 수 있는** 페어트레이딩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페어트레이딩 전략을 연구하기에 우리의 지식 수준은 터무니 없이 낮았으며, 우리나라에는 관련 책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원서를 빌려서 공부하였다.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두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으로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매주 써야 하는 ‘ELP’ 학습보고서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ELP’ 학습보고서는 매주 제출해야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ELP’ 보고서를 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오사오사’ 할 수 있었다.

매주 ‘ELP’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열정으로 채워보고자 2달 동안 아침 10시에 항상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공부를 하였다. 여름방학이라는 것도 잊은 채 정말 열심이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10시에 와서 ‘ELP’연구비를 통하여 커피 한잔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다.**

더욱 ‘ELP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값진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상하게도 몸도 힘들고 내용이 이해도 잘 안 돼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였지만 신기하게도 아침 10시가 되기도 전에 항상 도착해서 책을 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마감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논문을 쓸 때면 잠을 못 자기도 부지기수였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고 즐거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논문을 다 완성하고 제출하였을 때는 **기분이 뿌듯하면서도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10월12일 기다리던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심장이 떨려왔다. 그 동안 많은 공모전을 참가하면서 성공한 적이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즐겁게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가 기대가 되었다. 그 순간 정말 핸드폰을 확인하는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려왔다. 심장은 쿵쿵쿵 거렸다.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에게 온 것은 본선 진출 8개 팀에 선정되었으니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오라는 자세한 설명이 담긴 메일이었다.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10월 31일 많은 동부금융그룹 CEO와 심사위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그리고 장려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맨 땅에 헤딩’하던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서 상장을 받고 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온 것이었다.**

‘ELP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는 끝이 났다. 하지만 ‘ELP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 하는 일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더 큰 꿈을 꾸는 스물다섯 살의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영화 ‘세 열간이’를 보면 “All is well”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번 ‘ELP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스물다섯 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나와 같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통계학과 이**, 2012년도 참여학생)

* 2012, 2013 나를 성장시킨 사립대 프로그램(학사교육원 글쓰기 센터)에서 발췌